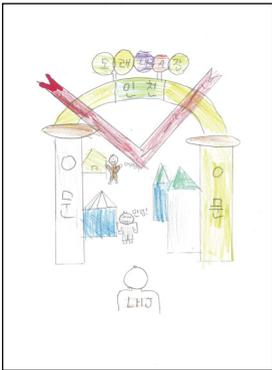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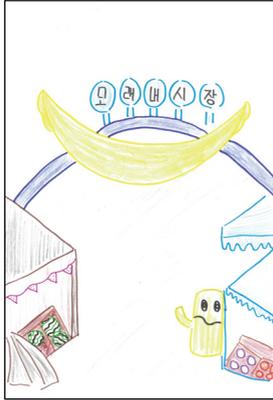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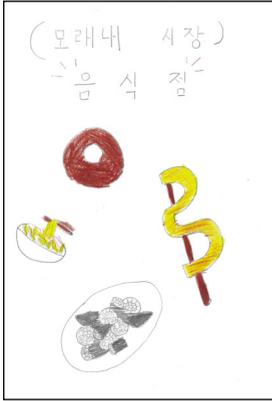


우리 동네의 자랑, 모래내 시장 이야기

인천정각초등학교 어린이 작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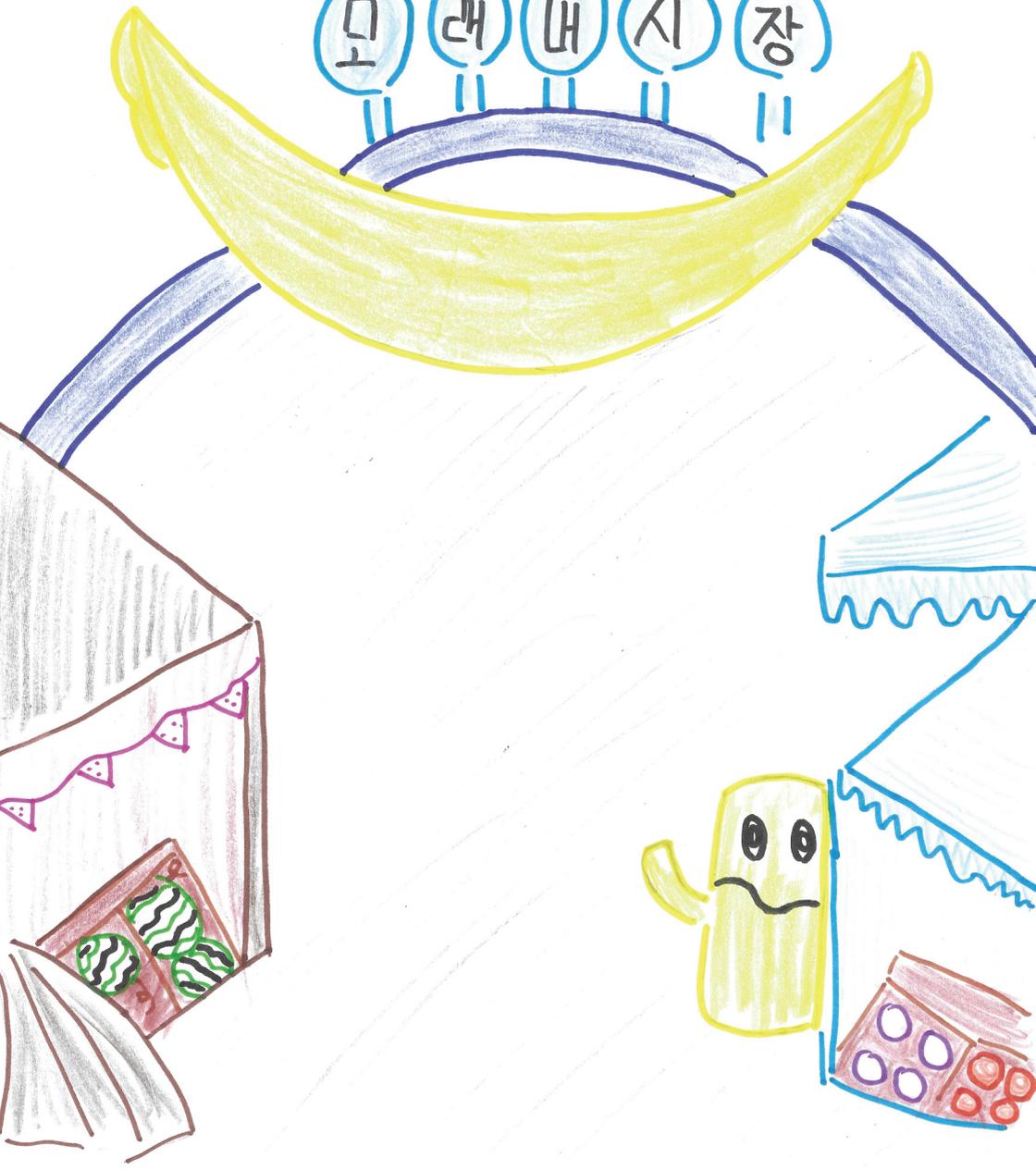


목 차

6-5 김서연	6
6-1 권대성	18
6-8 이현준	26
6-5 김경빈	34
6-3 이하랑	40
6-4 김정현	42
6-3 신민선, 6-8 장은성	44
6-7 이송이	46
6-7 방재준	51
6-1 이동현	58

시장길, 마음도 장을 봤다!	67
• 아라의 시점 _ 6-2 현아림	69
• 슬아의 시점 _ 6-6 이승아	81
진실된 아름다움 _ 6-2 오지윤, 6-6 정주현	97
작은 도둑의 친구 _ 6-4 이현서	105
책 만들기를 마치며	112

무
래
내
시
장



모래내 시장

글·그림 6-5 김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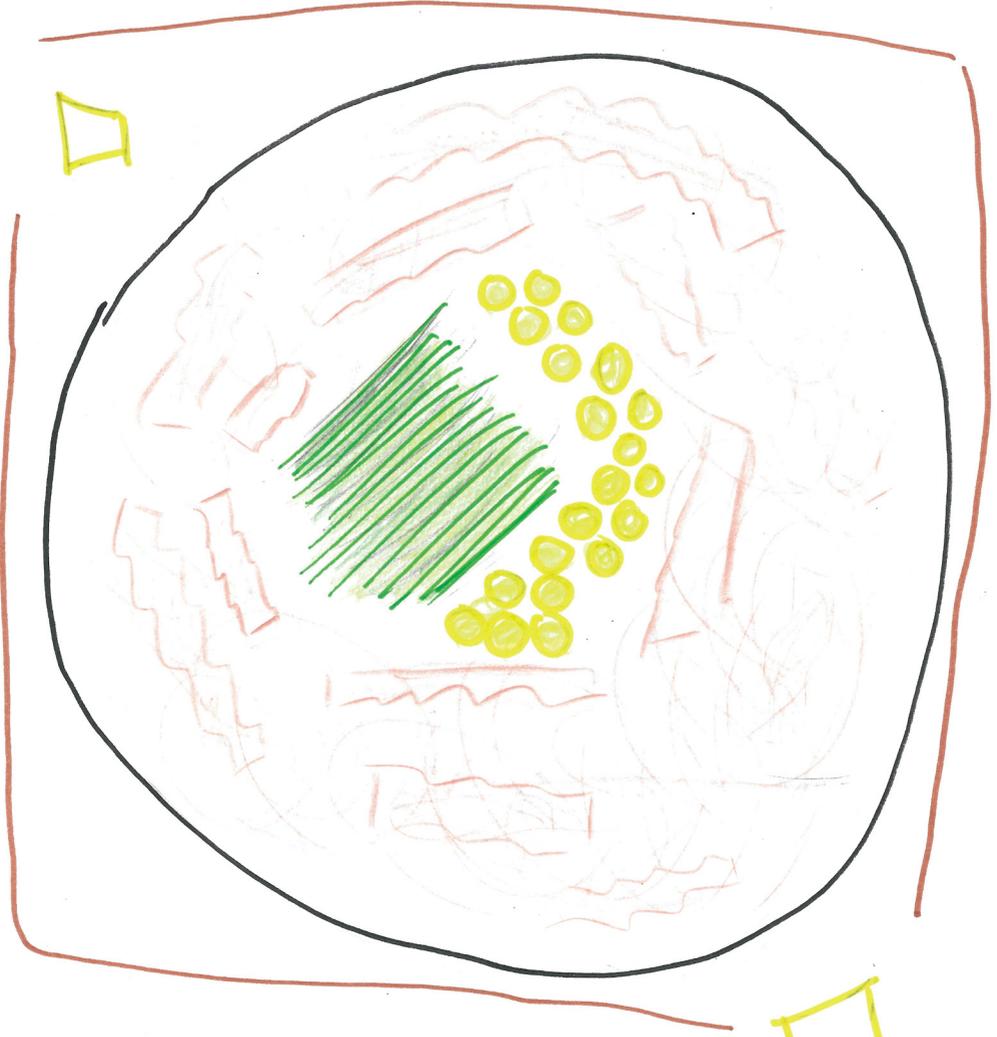
우리동네 모래내 시장을 소개합니다!

모래내 시장은 1980년대(약1982~1985년) 초에
노점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점차 시장 형태를 갖추어 왔습니다.

모래내 시장의 특징 및 매력은 다양한 물건과 먹거리,
즉 농산물, 생선, 청과, 정육, 반찬, 패션잡화,
생활용품 등 없는 게 없습니다.

또 접근성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시장입니다!!!



칼국수 냄새가 솔솔

모래내시장 한가운데에는

늘 따끈한 국물 냄새가 나는 집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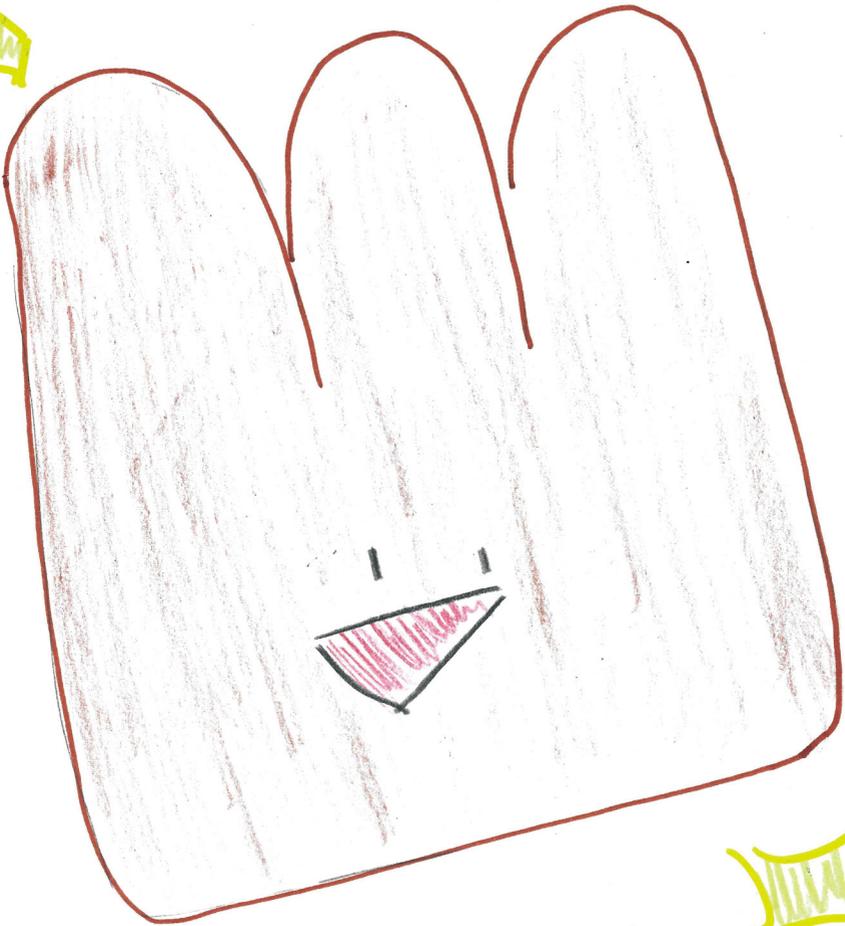
바로 홍두깨 칼국수 집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커다란 냄비에 칼국수가
보글보글 끓고 있지요.

"어서 와요! 오늘도 따끈한 칼국수 한 그릇?"

주인 아주머니의 환한 미소에 손님들은 늘 행복해져요.

쫄깃한 면발과 진한 국물은 시장 사람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워 준답니다.



달콤한 향기 가득

모래내 시장 입구에는 매일 아침 구수한 냄새가 퍼지는
보리 식빵 가게가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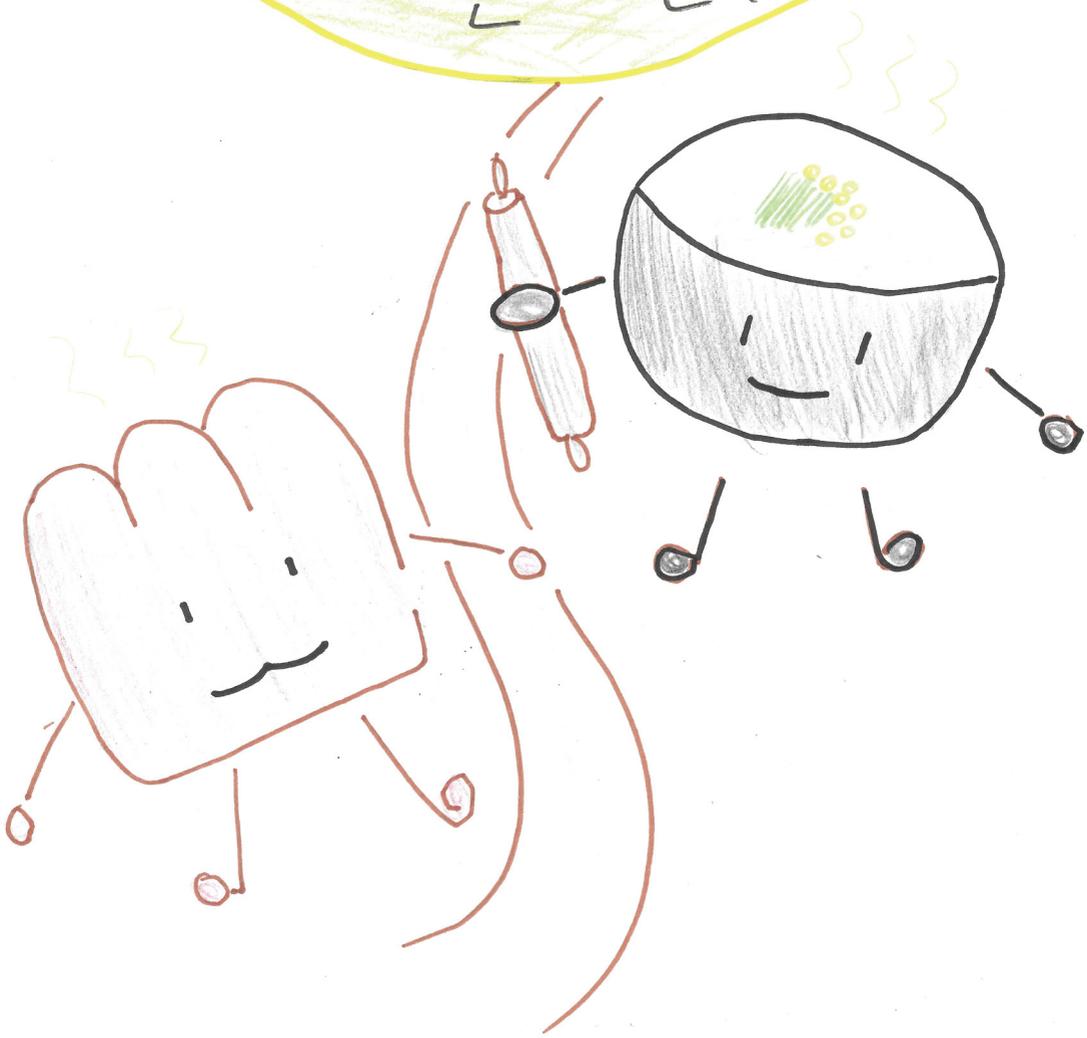
"딩동~ 빵 나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외치면 사람들은 줄을 서요.

따끈따끈한 보리 식빵은 고소하면서도 살짝 달콤해
한입 먹으면 입안 가득 행복이 번지지요.

모래내시강

맛있는 친구들



특별한 하루

어느 날, 하교 후 즐겁게 놀던 하은이와 다연이는 배가 고팠어요.

하은이는 "칼국수 먹고 싶다!"라고 했고,

다연이는 "난 빵이 더 좋아!"라고 했어요.

두 사람은 고민하다가, 먼저 칼국수를 먹고 보리 식빵으로 후식을 하기로 했어요.

따끈한 국물에 면발을 후루룩.

그리고 고소한 보리 식빵을 한입 베어 물며

두 사람은 동시에 웃었습니다.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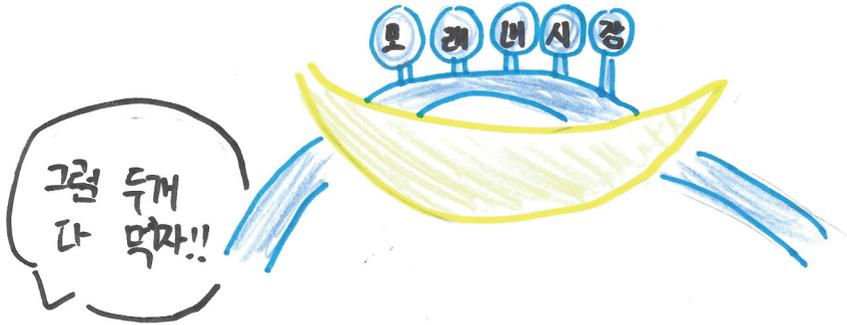
~ 하고 후 ~



와!! 드디어
훈련 끝났다!!

나 오늘
근식 조금 먹어서
배고픈데, 모래내 시장에
있는 통두개칼국수 먹으러
갈래?

아, 난
빵이 너 줄래?



모래내
통두개칼국수



찰보리
식빵



시장의 자랑

그날 이후, 하은이와 다연이는 모래내 시장에 올 때마다
두 곳을 꼭 들렀어요.

칼국수 집은 든든함을,

보리 식빵 가게는 달콤함을 주었거든요.

시장 사람들은 말했어요.

"흥두께 칼국수와 보리 식빵은 모래내 시장의 보물이야!"

글 · 그림 6-1 권대성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 옆에는 항구도시 "인천"이 있습니다.
인천은 바다와 인접해 있어 수산물이 풍부합니다.
인천에 있는 맛집이 궁금하세요?
인천에 있는 맛집 중에서도 특별한 곳,
우리 동네 구월동의 모래내 시장 맛집을 소개합니다!



고 삼 냉 면 국

냉면

20

냉면 2000

냉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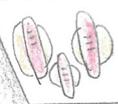
냉면 2000

고기 뫼고 싘 냉면

고쫘냉면, 정식 명칭은 '고기 뫼고 싘 냉면'입니다.
이름과 같이 냉면과 고기를 파는 곳이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특징으로는 냉면의 감칠맛이
어느 가게 보다도 좋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으로 편안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모래내 시장에서 저희 가족 외식 장소 1순위입니다.
또한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고기를 먹으러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데리소 베이커리

데리소
베이커리



델리스 베이커리

모래내 시장의 입구 쪽에 위치한 빵집입니다.

이곳은 아주 많은 종류의 빵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건포도빵' 때문입니다.

이곳의 건포도 빵은

첫째, 빵 사이에 씹히는 건포도가 빵의 풍미를 더해주고

둘째, 기본적인 빵의 식감이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가게를 추천합니다.

가맹 문의

문의처

COMPOSE  COFFEE

COMPOSE COFFEE

점포진입

TAKE

50g



컴포즈 커피(Compose Coffee)

인천 모래내 시장점입니다.

컴포즈 커피는 우리나라 전 곳에 분포되어 있을 만큼 유명한 음료수 가게입니다.

그런데도 이 가게를 정한 이유는,

이곳에는 저의 특별한 추억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모래내 시장을 다녀오실 때마다 아이스티를 사다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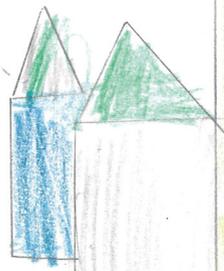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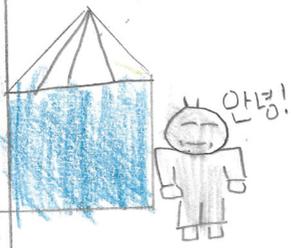
그때 먹었던 아이스티는 언제나 꿀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특별한 추억으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도 래 내 사 장

이 치
나 나

○
C/D



○
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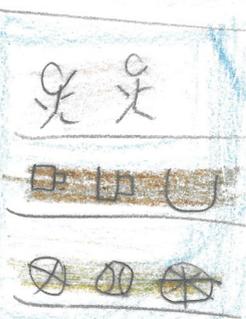
○
LHIJ

여기 안 가면 손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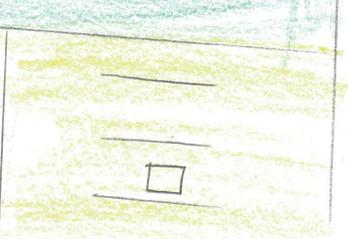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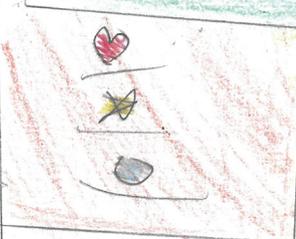
글 · 그림 6-8 이현준

인천의 명소 모래내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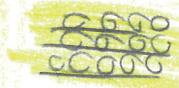
이 모래내 시장에는 단 32만 7342명 밖에 발견하지 못한 특별한 곳이 3군데가 있다.



다이소



다이소



나기 쇼핑

다이소

다이소(daiso)란?

다이소는 일본의 '다이소산교'의 한자어 '대창'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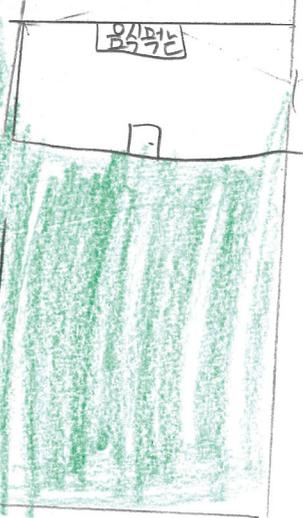
대창은 크게 번창한다는 뜻으로

다이소가 대박 나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세 시한 떡볶이
꼬마김밥

튀김
오뎅 대우오뎅 곤약 대우곤약

김밥 치즈 김밥 ~ ~ ~ ~ ~ ~



섹시한 떡볶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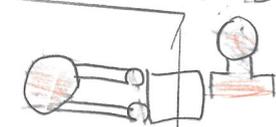
섹시한 떡볶이는 여러 사람들이 꼬마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식당이다.

사계절 다 이용하기 좋지만 특히 가을에는 떡볶이,
겨울에는 곤약, 어묵이 인기다.

이름처럼 떡볶이가 아주 섹시(?)하다.

바비식리보 큰 큰

감사합니다



맛있다.

찰찰 보리식빵

'찰찰 보리식빵'집은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이곳은 건강한 보리, 특히 찰보리를 이용해 식빵을 만들어서 '보리식빵'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다.

'찰찰 보리식빵'은 여러 가지 어른의 입맛에 맞춘 집이라, 초코소라빵 같은 것은 없는 빵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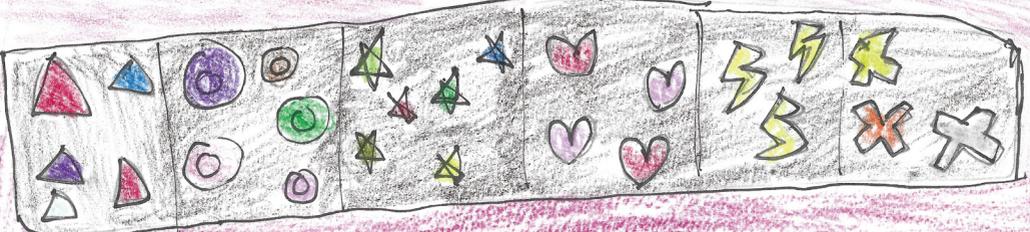
Q. "장사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맛있는 빵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Q. "많은 음식들 중에서 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몸에 좋은 재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대략 32만 7342명 밖에 알지 못한 가게 모래내 시장 맛집에 대한 소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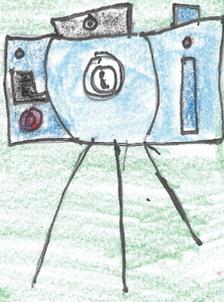


나라를 위한 예술



팔로우미 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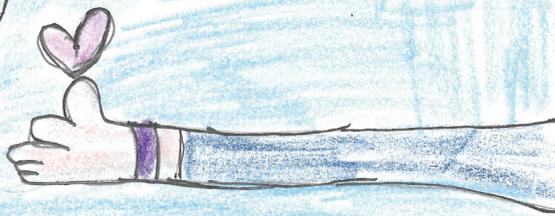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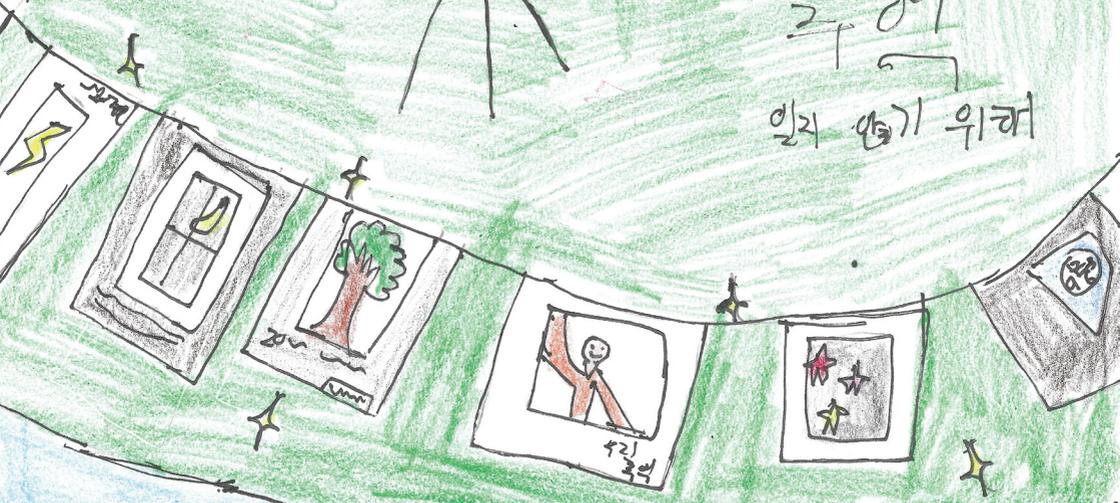
나 자신을 추구하는 것, 나 자신을 뽐내는 것
어떻게 보면 모나 보이고 재수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보면 나 자신을 꾸미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남에게 잘 보이는 것과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나 자체의 예술,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은 거창한 예술을 생각하지만
마냥 그럴지만은 않다.
소소하게 꾸미는 것은 과하지 않게 나를 만족시켜 준다.
손톱 위에 수놓아진 나만의 세계에 잠겨 있으면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가장 간단하게 손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네일 아트는 마법이 깃든
판타지인 것 같다.



다시 기록을

주어

일기 쓰기 위해



모래내 스마트폰 사진 인화

모래내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추억의 모임이자 광장.
한데 수놓아져 있는 사진들의 빛나는 추억은
마치 밝게 빛나는 조명처럼 내 마음을 비춰준다.
그런 말이 있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니라서
너도 나도 사진에 온갖 추억을 담는다.
하지만 찍고 난 사진은 휴대폰 속에 묻힐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다신 돌아오지 않을 추억이지만,
우리는 그 추억을 감상이라는 이유로
휴대폰에 가둬 놓는다.
하지만 인화된 사진을 보면 눈과 마음, 기억에
행복한 웃음, 배려, 사랑을 저장한다.
잊지 못할 추억을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이곳이
바로 추억의 광장인 것 같다.



모래내 시장 꽃집

모래내 시장에 있는 꽃집이자
마음을 열어주는 바쁜 시장 속 빛을 내어주는 정원,
나를 비춰주는 조명 같은 꽃들이 나를 줄지어 감싸준다.
이곳은 어쩌면 마음속 정원.
가족과 함께 꽃집에서 꽃을 고르며
웃음꽃을 피웠던 빛나는 추억이 묻어있다.
마음이 푸르러지고 사랑, 행복 같은
감정이 일깨워지는 마음의 정원.
웃음꽃이 피어지는 행복의 장.
어쩌면 나도 또다른 행복을
꽃피우고 싶었을지도 모르지.
이런 마음이 깨끗한 나의 감정을
만들어주는 것 같다.

원조 삼교소공창

오늘 저녁



모든 메뉴
포장가능



CASS

대용 메뉴



원조삽교소곱창

구월동 모래내 시장 안에는 유명한 곱창 거리가 있다.

'곱창 거리'라고 불릴 만큼 여러 곱창가게가 있지만,

그중 항상 자리가 짹짹 차 있는

'원조 삽교소곱창'을 소개합니다.

메뉴는 대표적으로 한우 곱창, 막창, 대창구이가 있고,

소곱창전골과 볶음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주로 한우 곱창, 막창을 시켜 먹습니다.

곱창과 막창의 감상평

"곱창은 곱이 가득해서 너무 고소하고 잡냄새가 전혀 없
음. 막창은 쫄깃쫄깃한 식감이 재미있고, 양념이 잘 배여
서 계속 손이 감. 또, 대창이나 다른 부위도 좋아한다면
한우모듬구이를 추천!"

우리 동네에 이런 가게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찰찰보리 식빵

식빵 전문



찰찰 보리식빵

'찰찰보리식빵' 집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빵집입니다.
생긴 지는 1년이 채 안 됐지만 수제로 가격도 저렴하게
식빵을 먹을 수 있어 좋습니다.
또 식빵의 맛이 다양하여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습니다.

타 강 정

010-XXXX-XXXX



글·그림 6-3 신민선, 6-8 장은성

모래내 시장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인 만큼, 유서 깊은 가게들도 정말 많이 보인다. 보통 그러한 가게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서 모래내 시장 정문 쪽에 위치한 닭강정 가게의 사장님을 인터뷰해 보았다. 질문 중에는 어려운 질문도 있었지만, 사장님께서서는 문제없이 대답해 주셨다.

Q. 장사하면서 중요하게 여긴 4대 원칙은 무엇인가요?

A. 4대 원칙은 없고, 손님에게 신선함을 전달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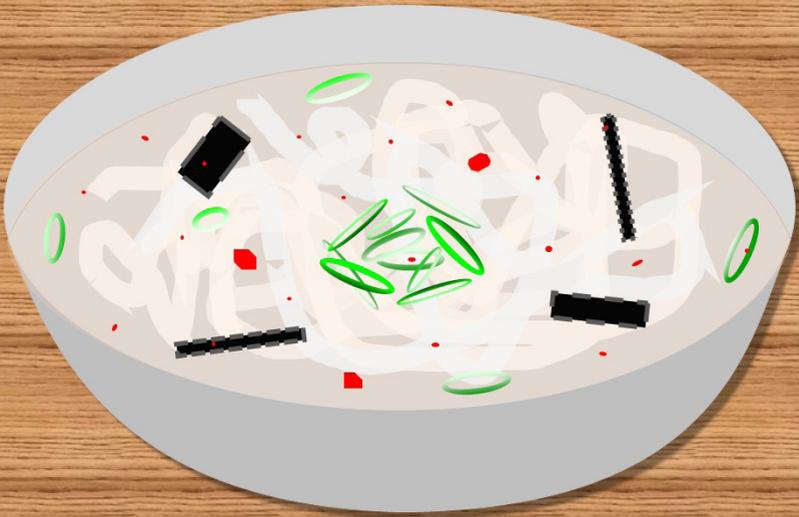
Q. 진상 손님이 나타났을 때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손님 입장에서 최대한 맞춰 주지만 그 이상이 되면 신고한다.

Q. 직원들과의 소통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A. 부부이니 최대한 소통하고 이해하려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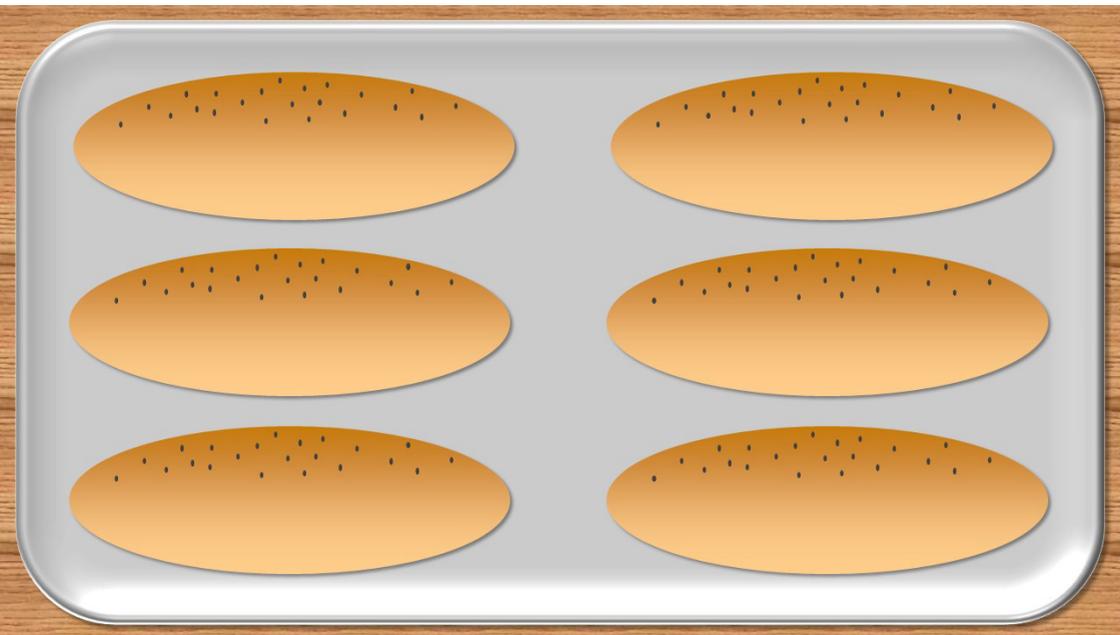
시간상 모래내 시장의 여러 가게 중 한 곳만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좀 아쉬웠지만, 사장님께서 흔쾌히 인터뷰를 승낙해 주셔서 순조롭게 글을 쓸 수 있었다. 역시 유서 깊은 가게들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았다.



맛있는 음식 = 행복

이곳은 모래내 시장에 있는 칼국수집, 흥두깨 손칼국수입니다. 이곳은 시장의 여느 칼국수집들과는 다르게 저녁 시간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음식이 맛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 동네에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맛집을 알아갈 시간이 부족했죠. 하지만 이곳은 언제 찾아가도 정성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맛있는 게 필요할 땐 이곳을 찾는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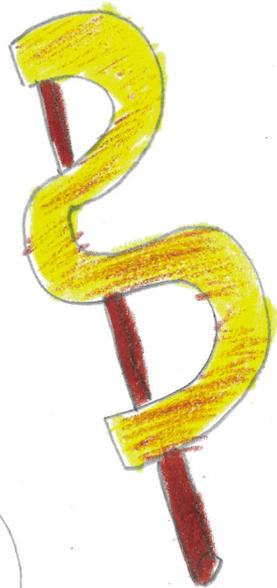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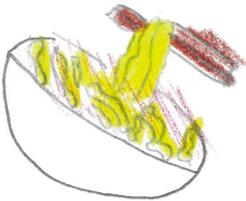
맛있는 음식 = 화합

저희 가족 3명은 성격도 다르고 입맛도 달라요. 저는 단 걸 좋아하지만 부모님은 단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기 델리스베이커리에서는 3명 모두 입맛에 맞는 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앞을 지날 때마다 엄마께 크림빵을 사달라고 조른답니다.

(모래내 시장)

음 식 점

글·그림 6-7 방재준





모래내 흥두깨 손칼국수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모래내 흥두깨 손칼국수"입니다.
어렸을 때 많이 가봤던 집이고
특히 칼제비가 맛있는 집입니다.



팔천순대전문

팔천순대
전문점

팔천순대
전문점

인천 구월모래내시장점

가마솥 팔천순대

모듬순대
가마솥 팔천순대

신규오른

순대전문점

가마
팔천순대
전문점

모듬순대 9천원
순대 5,000원
가마솥 순대 9,000원
가래순대 14,000원
김치순대 18,000원

모듬순대
갈순대 + 약계순대 + 고기순대
+ 김치순대 + 김치순대 + 단 피와
소 8,000원
중 14,000원
대 18,000원



갈순대

1인분 5,000원
소 9,000원
중 14,000원
대 18,000원

가마솥 팔천순대

팔천순대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할 집은 "팔천순대"입니다.
골목에 숨어 있는 집으로 다양한 맛의 순대가 특징이며
푸짐한 양이 들어있는 집입니다.



하루하루

天下一麵

해내시장점

032-27

天下一麵

2월 20일

고기국수
에서
만들어 진
麵의
입니다!

친하일면
기술전수장원

12:00-13:00
13:00-14:00
14:00-15:00
15:00-16:00
2020년 1월 10일

성원으로
준비중



월산고기국수



얼른고기국수



야부관소밥



물론야부관소밥

천하일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집은 "천하일면"입니다.
새로 생긴 식당이며, 풍미 가득한 국물과
아주 부드러운 고기가 인상 깊은 식당입니다.

지금까지 '모래내 시장 음식점'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통과 정성이 담긴 모래내 시장

인천 구월동의 모래내 시장은 수십 년간 지역 주민들의 삶과 함께 숨 쉬어온 전통 시장이다. 좁은 골목 사이를 가득 메운 상인들의 외침과 음식 냄새는 정겨운 일상의 풍경을 만든다. 빠르게 변하는 도시 속에서도 모래내 시장은 여전히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공간으로 남아있다.



홍두깨 손칼국수

모래내 시장 한 켠, 손맛 가득한 홍두깨 손칼국수 집에서 아침마다 면을 치는 소리가 울린다. 이곳은 밀가루 반죽을 직접 밀어내며 하루를 시작한다. 두툼하게 밀어낸 면발은 투박하지만 시원하고, 맑은 육수는 깊은 맛으로 속을 풀어준다. 정성스런 손맛은 시장을 찾는 이들에게 오랜 단골이 되게 만든다. 뜨끈한 국물 한 그릇에 담긴 세월의 깊이는 말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준다.



모래내시장 호떡

구월동 모래내 시장의 한 켠,
작지만 긴 줄이 있는 호떡집이 있다.
기름없이 구워내는 이 호떡집은 건강한 맛을 고집한다.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달콤한 꿀과 견과류가 가득해 남
녀노소 누구나 반하게 만든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 호떡은 바쁜 시장 골목 속 작은 심포가 되어준다.



더블엑스베어 인형뽑기방

구월동 모래내 시장 속 '더블엑스베어' 인형뽑기방은 아이들과 청년들의 소박한 꿈이 모이는 공간이다. 집계발 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순간, 어른과 어린이 모두 진지해지며 웃음과 탄식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아기자기한 인형들과 도전하는 손길이 어우러져 짧은 순간의 설렘과 희열을 만들어내는 곳. 시장의 활기 속에서 작은 승리를 거머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곳이다.



**시장길,
마음도 장을 봤다**

by.몽매 아리솔



〈아리의 시점〉

by.아리솔



시장길, 마음도 잠을 봤다!

- 아라의 시점

글·그림 6-2현아림

소복소복 눈이 내리던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끄러운 애들 사이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선생님 소리가 들리자, 애들은 곧바로 자리에 앉았다.

"여러분, 오늘의 수업 주제는 우리 동네인 구월동의 대표적인 시장, 모래내 시장을 탐방하는 것입니다. 2인 1조로 짝을 뽑아볼까요?"

모두가 자기들이 친한 친구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준비뽑기로 짝을 정한다고 하셨다.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홀수 번호인 애들이 나가서 짝을 뽑았다. 나는 짝수 번호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었다. 솔직히 해봤자 다 거기서 거

기다. 특별히 친한 친구도 없고 같이 놀만한 애도 없는데, 그냥 아무나... 아니다! 아무나 되면 안된다... 절대, 절대 정슬아만큼은 안된다. 나는 정슬아가 제비뽑기를 하자 간절히 빌었다. '제발 판 애... 제발...'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슬아랑 아라 B팀!"

가슴에 큰돌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왜 하필이면... 왜 그렇게 많은 애들 중 정슬아였을까... 내가 웬만하면 그냥저냥 넘어가던 사회가, 숙제가, 아주 큰 돌이 되어 내 마음에 내려앉았다. 생각만 했는데 머리가 어지러웠다.

집에 돌아온 후, 아직도 머리가 아팠다. 정슬아,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4학년 때였다. 그때도 지금 이맘때처럼 눈도 내리고 두꺼운 옷을 입으며 노는 시기였다. 그때 당시 우리 학년이라면 모두가 아는 단짝이었던 나와 정슬아. 어릴적 부터 성격도 잘 맞고, 서로 좋아하는 것도 잘 알고 잘 맞춰주었다. 그렇게 마냥 잘 맞기만 한다고 생각했던 정슬아. 어느 날 정슬아가 자기 어렸을 적 동영상을 보내주며 웃기다고 했다. 물론 많이 웃겼다. 자기 혼자서 넘어지고 놀면서 땀소를

했으니... 그러면서 나에게 저장은 해도 되는데, 다른 애들에게 보여주진 말라고 했다. 나는 당연히 알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 당연히 지켰다. 가장 친한 친구가 민망할 수 있단 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은 이상 약속은 지켰다. 하지만, 어느 날 학교에 정슬아의 그 영상이 퍼졌다. 진심으로 내가 한 일이 아니었다. 솔직히 그때 한번 보고 거의 보질 않았다. 근데, 정슬아는 그 짓을 내가 한 줄 알았나보다. 나는 정슬아에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믿어줄 줄 알았다... 근데, 아니었다. 정슬아는 내 말을 무시했다. 내가 말을 걸으려 해도, 문자로 말을 해도, 나를 썩 지나가 버리고, 내 문자를 읽씹했다. 그때부터 난 알았다. '애는 내가 뭘 해도 날 이제 더 이상 안 봐주겠구나...' 난 그때부터 친구들을 잘 안 믿었다. 정슬아와의 일이 있고 정슬아는 다른 친구들과 잘 지냈지만, 나는 오히려 혼자가 편했다. 어떻게 해도 둘 보단 하나가 훨씬 편하고 좋다. 그렇게 살아온 게 벌써 2년... 솔직히 아직도 정슬아와의 일은 기억에 또렷하게 남는다. 그나저나, 정슬아와 같은 팀이 되었으니 이제 만나야 하는데... 문자를 어떻게 해야 하지... 전화번호도 절교 후 지웠고, 말로 하기도 떨떠름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되지 하며 한 10분 동안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그냥 말로 해야하나 싶어 포기하고 침대에 누웠다.



그때, "띠링!" 문자가 왔다. 정슬아에게서!

핸드폰을 보니, 이렇게 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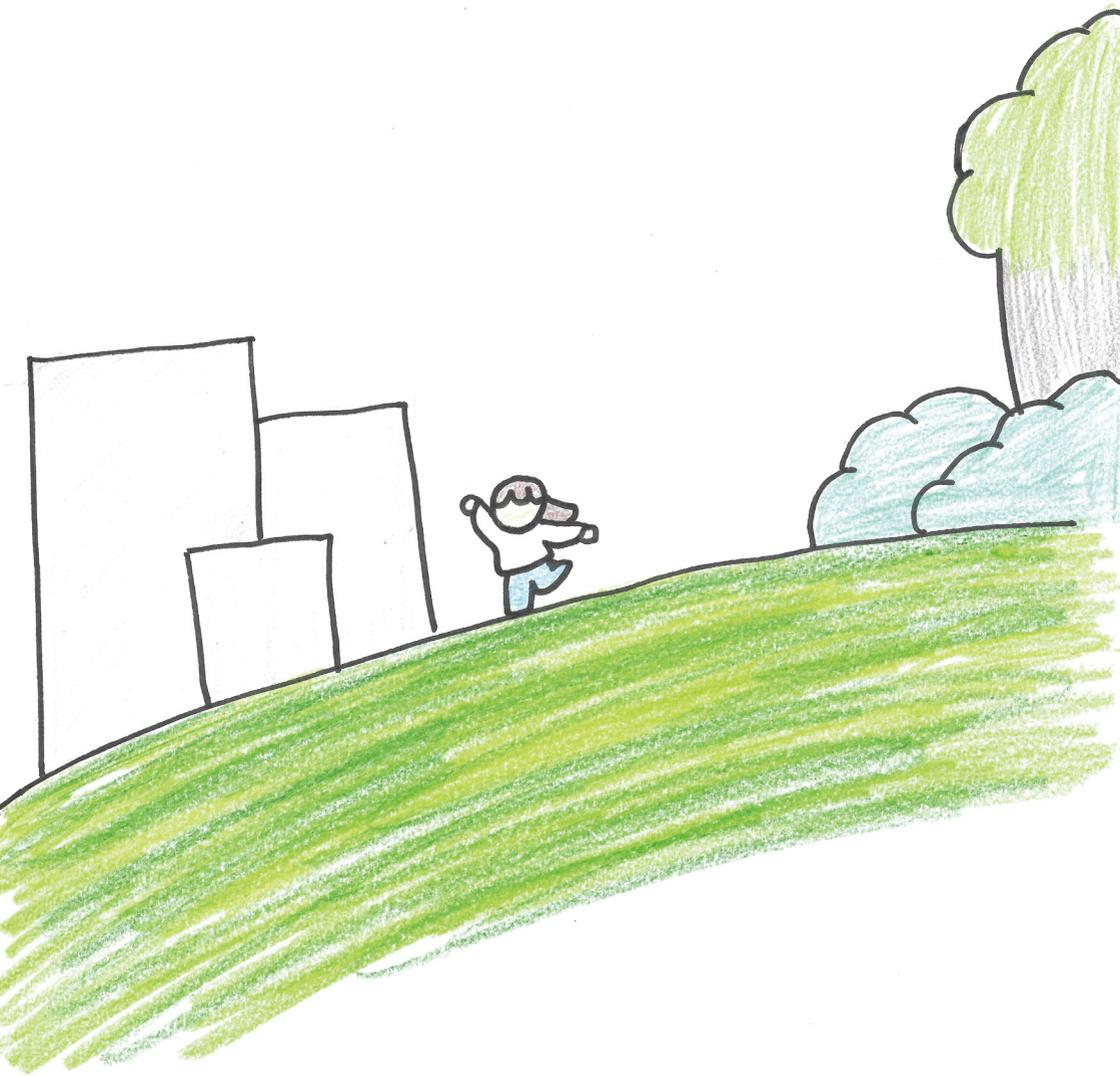
"혹시 시간 되는 날 있어?"

착한 척하는 가식적인 말투, 마음에 안 든다.

나는 답변을 보냈다.

"다 괜찮은데, 평일엔 바빠서 주말이 좋을 것 같아."

그래도 학교 숙제니 최대한 예쁘게 보냈다. 그렇게 이번 주말 12시에 학교 앞 정문에서 정슬아와 만나기로 했다.



오늘은 정슬아와 만나기로 한 날이다. 학교에서 보는 것도 지긋 지긋한데, 주말에까지 정슬아의 그 바보 같은 얼굴을 봐야 한다 니... 나가기 전부터 기분이 별로였지만, 이번에도 학교 숙제니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안고 학교 앞 정문으로 갔다. 학교 앞 정문에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다. 1분, 2분, 3분, 몇 분이 지나도 정슬아는 코빼기도 안 보인다. 점점 더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꼭 참았다. 참다참다 전화화를 하려는 순간, 저만치에서 정슬아가 뛰어왔다. 멍청하고 해맑은 표정으로. 늦은 주제에 웃으면서 오니 화가 났지만, 꼭 참고 청년다방을 갔다. 가서 떡볶이를 시키고 가만히 서로 핸드폰을 봤다. 솔직히 할 말도 하고 싶은 말도 없었다. 나도 그게 편했고 정슬아도 그게 더 편했을 것 같다. 떡볶이가 나오고 한참을 먹고 있었다. 그때, 정슬아가 입을 떼고 말했다.

"너 어렸을 때 매운 거 잘 못 먹었는데, 그치?"

별말 아니지만 뭔가 무시하는 것처럼 들려, 나도 한마디 했다.

"너는 참 잘 울었는데, 그치? 울보 주제에!"

내가 살짝 화가 났는지 막말을 한 것 같았지만 정슬아의 한방 먹은 듯한 표정을 보니 고소했다. 정슬아도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는지, 계속해서 뭐라했다. 물론, 나도 지지 않았다. 떡볶이가 거의 바닥을 보여갈쯤, 정슬아가 나에게 소리쳤다.

"그럼 넌! 입만 살고 오만 하잖아!"

순간 마음이 떨렸다. 화가 나서 떨리는 건지 무엇 때문에 떨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못할 것 같았다. 나는 곧바로 가방을 챙겨 청년다방을 나왔다. 나와서 아무 고민도 없이 로얄서점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모래내 시장 지하에 위치해 있는 작은 서점인데, 마음이 복잡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간다. 가면 오래된 종이 곰팡이 냄새와 세월의 냄새가 나를 반겨준다. 그런 곳에 있으면 단 몇 분 만에 기분이 괜찮아진다. 나는 책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때 어떤 책이 내 눈에 들어왔다. 조심스레 책을 꺼내보니 노트인데 보는 순간 떠올랐다. 이 노트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정슬아와 나의 교환 일기... 나는 그 노트를 들고 잠시 생각에 빠졌다. 어떻게 단짝이었던 우리 사이에 금이 갔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서로의 한마디에 으르렁댔는지. 몇분 간의 고민 끝에 내가 내린 결론은 이거다. '모든 것의 시작은 나였다!' 내가 먼저 슬아의 기분을 상하게 했고, 오늘도 별거 아닌 말에 내가 먼저 슬아를 도발했다. 나는 곧장 서점을 나와서 다이소로 갔다. 내가 다이소로 간 이유는 단 하나. 슬아에게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이다. 예전부터 슬아는 다이소를 참 좋아했다. 지금이라도 다이소에서 슬아가 좋아할 물건을 사서, 슬아에게 사과해야겠다. 물론, 사과를 받아 줄지는 모르겠지만... 지난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같이 내가 예민하게 굴어서 생긴 일 같다. 그래도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이소 안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공기와 사람들 냄새. 서점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나는 곧바로 2층으로 올라가서 학용품과 간식을 집어 들었다. 슬아가 어떤 간식을 좋아했는지, 좋아할지, 기억을 더듬어 가며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골라서 계산하러 다시 1층으로 내려갔다. 몇 분간 복적이기는 계산대를 비집고 들어가 계산을 시작했다. 물건을 거의 다 스캔해 갈 때 짬, 누군가가 뒤에서 내 이름을 불렀다.



"어..? 유아라?!?"

뒤를 돌아보니 거기엔 슬아가 서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라일락 향의 향초를 들고 말이다. 나는 슬아를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몇 초간 우리 둘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미...미안 했어..."

내가 용기 내어 말했다. 물론 너무 작게 말해 슬아에게 이 말이 들렸을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지만 말이다.

"아...아라야..."

슬아가 불러주는 나의 이름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나는 감정을 담아 이야기했다.

"나도 이걸 주고 싶었어, 내가 잘못된 거 알아... 그제... 내 잘못이란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슬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나도 내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리를 내리고 있던 서로에 대한 가시가 없어지듯, 나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눈물을 삼키고 목이 멘 소리로 말했다.

슬아도 나에게 사과하고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관계라는 무너진 벽을 다시 세울 것이다. 하나하나를 차근차근 세우다 보면, 전보다도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계산을 끝마치고 다

이소를 나와 근처 카페를 갔다.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새소리 같은 노래를 들으며 학교 과제 이야기를 했다. 오늘 아침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분위기였다.

"이 빈칸은 뭐로 채우지?"

"뭐? 아, 이번 답사로 알게 된 것을 구하시오?"

"..."

잠깐의 정적으로 알 수 있었다. 우리가 같은 답을 생각하고 있던 것을...

"여러분, 주말 잘 지내고 왔나요?"

선생님의 목소리로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우리 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끌벅적했다.

"네에~!"

아이들의 대답에 만족한 듯 선생님께서 웃으시며 말씀을 이어가셨다.

"이번 답사 숙제에 B조는 좀 특이한 답을 적어왔네. B조가 발표해 볼까? 2번째 질문 빈칸에 '친구의 소중함/우정' 이라고 쓴 이유는 뭐야?"

모두가 슬아와 나를 쳐다보았다. 우리도 서로를 보면서 웃으며 말했다.

"그건... 비밀이에요!"

우리 둘의 대답에 모두가 아쉬워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의 일기 뒷장에 추억이 한 장 추가 되었다.

〈산아의 시점〉 리본

by.몽매



- 슬마의 시점

글·그림 6-6 이승아

꿇은 눈송이가 사정없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또각또각 선생님의 구두 소리에 학생들은 여느 때처럼 제자리로
돌아갔다.

"여러분, 오늘의 수업 주제는 우리 동네 구월동의 대표적인 시장,
모래네 시장을 탐방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서 선생님을 쳐다보았다.

"2인 1조로 짝을 뽑겠습니다."

아이들은 원하는 친구와 짝을 하고 싶다는 눈빛을 보내왔지만,
선생님은 무시하고 말을 이어 나갔다.

"오늘이 음... 12월 11일이니까 홀수 번호 친구들이 나오세요."

선생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들이 몰려나왔다.

물론 그들 중 나도 하나였지만 말이다.

곧 내 차례가 되자 나는 재빨리 상자 안에 손을 집어넣었다.

나는 내 단짝, 시아에게 눈길을 보내며 공을 집었다.

제일 느낌이 좋은 공, 그게 그 공이었다.

그러나...

'어라? 유...아라?'

그 공에 적혀있던 이름은 '유아라'였다.

아라, 아니 유아라는 2년 전 나와 절교했던 친구였다.

순간 당황하여 멈춰있던 순간.

"슬아랑 아라랑 B조."

눈치 없는 선생님의 말이 울려 퍼졌고, 순간 아라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아이씨, 이 바보같은 손이 또 사고를...'

기분이 확 나빠졌다.

'너 같은 애 나도 싫다고...'

수업이 진행되어도 선생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 흘려듣는 듯했다.

교과서가 평소 하지 않던 낙서들로 채워져 나갔다.

판따란 판따라라란.

종이 치자 자연스럽게 시아가 내 책상 쪽으로 걸어왔다.

"야, 나 이번 시험 망한 듯..."

늘 하던 흔한 이야기들.

그러나 오늘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시아가 돌아가고 난 뒤, 참았던 한숨이 절로 나왔다.

제일 피하고 싶었던 애랑 같은 조라니...

야는 친한 친구랑 되었다고 하는 것 같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저 부러웠다. 과거로 돌아가 시아와 하고 싶었다. 아니... 개만 아니어도 좋았다.

"진짜 유아라 겁나 싫어..."

무의식적으로 흘린 말이 아라에게까지 달은 듯했다.

어떻게 알았냐고?

갑자기 친구랑 하던 말을 멈추고 나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다는 건.

심증만 따지면 빠지 못할 증거일 것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가?.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을 텐데도 얼굴을 찌푸리는 걸 보면 역시 찢리는 게 많았나 보다.

'못된 애!' 몇 년간 비극적이게도 같은 반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나의 솔직한 평가였다.

터벅터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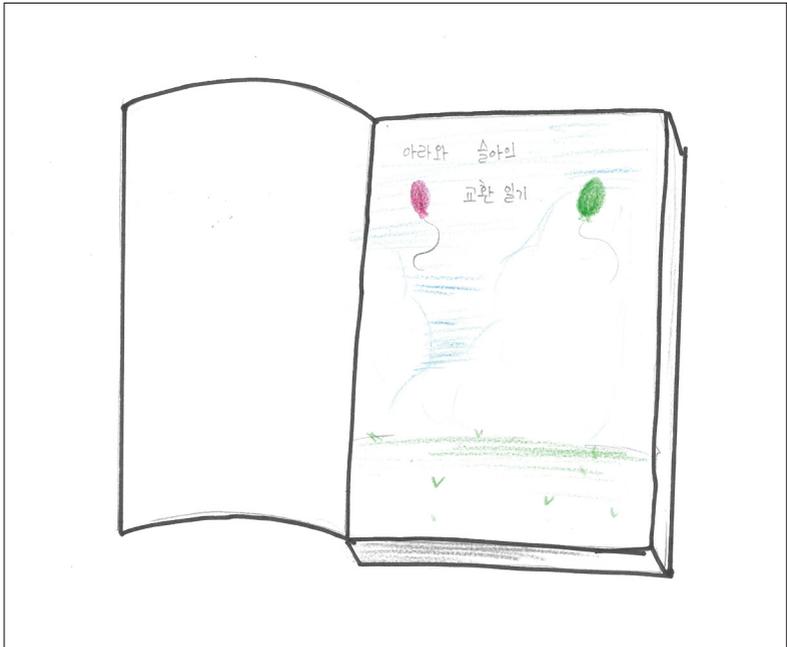
집에 돌아온 난 털썩 침대에 누워버렸다.

"에라, 이씨! 왜 하필이면 다른 애도 아니고... 걀냐고..." 한숨이 터져 나왔다. 나는 sns에라도 나의 답답함, 막막함을 하소연하고 싶어 급히 핸드폰을 찾기 시작했다.

쓰윽 쓰윽.

책상 위, 침대 옆 구석 등 내 폰이 있을 만한 곳에 손을 휘적여보았다.

그때, 구석에서 어떤 종이들이 만져졌다.



'어라라... 이거 뭐지?'

나는 궁금함을 이기지 못하고 종이들을 침대 위로 들어 올렸다.

그것은 낡은 노트였다.

외관에 예쁜 토끼 그림과 곰돌이가 서로에게 꽃을 주는 화기애애한 그림.

유치원생 아니면 저학년들만 쓸 법한 유치한 외관.

'내가 이런 걸 썼던 적이 있나?'

나는 조금의 긴장감을 가지고, 노트를 열어보았다.

펼럭. 한 장을 넘기자, 첫 장에 적혀있는 인상 깊은 문장.

「슬아와 아라의 교환일기」

어릴 적의 향수가 있는 비뚤비뚤한 어린애 글씨체를 보니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식간에 몇 페이지가 넘어갔다.

「6월 10일, 아라와 간 독립공원」

「7월 2일, 슬아의 생일파티」

「3월 30일, 야구장에서」

있고 있었던 추억의 회상에 괜시리 울컥해졌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넘기고 또 넘겼다.

그리고... 일기장에 있는 마지막 글.

「1월 18일, 너 이제 나한테 말도 걸지마」

제목과 함께 적힌 화난 표정의 그림을 보니, 그 시절의 내가 얼마나 화가 나 있었고,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지 직설적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어떻게 내 비밀을 남에게 알려줄 수 있어?!

내가 비밀 지키라고 신신당부 했는데...

너 진짜...

너 이제 나랑은 끝이야...!

‘나도 생각보다 유치했었구나...’

물론 비밀을 유출한 것은 좋은 게 아니다.

그렇지만, 비밀을 말한 나의 잘못도 그 슬픔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는 다시 이 관계도를 그려 나갈 수 있을까?’

이쯤되니 다시 학교 과제가 떠올랐다.

내가 포기하려고, 망치려고 했던 그 과제.

잘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다신 오지 않는 절호의 기회였다.

책상 끝부분 떨어질 듯 반은 책상 밖으로 나가 있었던 폰을 집어들었다.

「혹시 시간되는 날 있어?」



그 애가 먼저 연락해 주기를 내심 기대하면서도 그럴 일 없을 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오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일부러 친절하게 대화를 시작했다.

곧 답장이 왔다.

솔직히 '누구세요.'라는 말이 나올까, 너무 초조했지만 뜻밖에 말이 나왔다.

「다 괜찮은데, 평일엔 바빠서 주말이 좋을 것 같아.」

역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은 진리인 것 같다.

'강 따로 하자'이런 말이 나올까 고민했던 것과 달리 약속은 금방 잡힐 듯 했다.

「오키, 그러면 토요일 날 보자.」

무난한 토요일 아침, 아라를 만나러 가기 전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바로 일기장을 다시 정독해 보는 것.

오랜만의 만남에 아라의 취향을 다시 확인해 보면, 대화를 이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3/2쯤 읽었으려나... 휴대폰 알림이 시끄럽게 울려댔다.

설마설마하며 시간을 보니 역시나 약속 시간 5분 전이었다.

가방을 챙기고 걸옷을 챙기고 문밖으로 쫓기듯 나왔다.

"다녀오겠습니다아아-"

타다닥타다닥.

결국 도착했을 땐 이미 8분 정도가 늦어있을 때였다.

아라는 내가 늦은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나는 오랜만에 사적으로 만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허어허어, 미안해..."

잠시 후, 떡볶이집에 도착한 우리는 떡볶이를 주문했고,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 여러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하면 아라가 좋아할까?, 친했을 때 추억을 꺼내면 좋은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난 일기에서 봤던 사건 중 하나를 읊었다.

"너 어렸을 때, 매운 거 잘 못 먹었는데, 그치?"

"..."

"옛날ㅇ"

내말이 끝나기도 전, 아라가 말을 끊었다.

"너는 참 잘 울었는데, 울보 주제에..."

뭐라고?

아라의 비꼬는 듯한 말투가 내 귀를 찔렀다.

참았다, 아니 참으려고 했다.

"그러는 넌! 입만 살아 오만하면서.!"

순간 화가 나서 크게 외쳐버렸다.

'하...' 발끈해버렸다.

순간 대책 없이 말한 것에 대한 후회가 몰려왔지만,

아라는 이미 자리를 정리하는 중이었다.

"그래... 이 입만 살고 오만한 사람은 먼저 갈게."

"어어.?!"

분명 내가 원한 결말은 이런 게 아니었다.

그저 관계를 다시 써가고 싶을 뿐이었는데...

또르륵.

나도 모르는 새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곧 내 팔 소매가 젖어갔다.

'잘 하고 싶었는데...'

한참을 울었을까? 정신을 차렸을 땐 15분이 지난 후였다.

그러나 어쩌나. 이번엔 달라지겠다고 마음먹고 시작한 일이다.

평생 오늘을 후회하느니 행동을 하는게 더 나을 것도 같았다.

결심했다. 선물을 주면서 사과하겠다고.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다시 기회를 가져보겠다고.

실패한다고 해도 상관없었다. 시도를 했다는 것에 난 만족하니까.

가게를 나온 후, 나는 급하게 아라가 간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아라가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봤던 방향을 따라가 보다보면 나올 수도 있을거라 생각했다.

타다닥타다닥.

걸다 보니 어느새 모르는 길목에 들어와 있었다.

여기가 어디지?

막막해서 좀 쉬려던 그때.

익숙한 빨간 지붕을 발견했다.

'어? 저... 저기는...' 다이소였다.

오랜만에 익숙한 건물을 보자 반가워 그쪽으로 뛰어갔다.

힘들긴 했지만 나름대로 길을 찾았다는 생각에 기분은 좋았다.

"뭘 사지?"

고민하던 찰나 2층 구석에 있는 향초를 발견했다.

'무슨 향이 나으려나?' 향도 굉장히 종류가 많았다.

장미, 라벤더, 라일락까지.

그때 동아리 시간에 읽었던 책에서 나온 말이 떠올랐다.

라일락은 우정을 뜻하는 꽃이라고.

나는 그 향초를 집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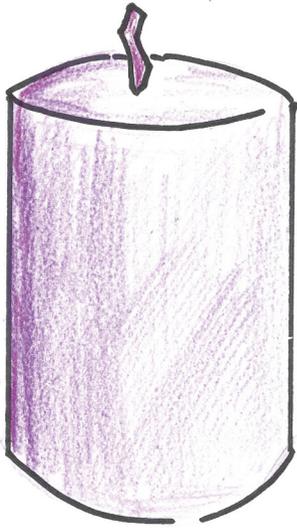
꽃말을 설명해 주면서 주면 더 의미 있을 거라고.

그런데...

"어..?유아라?!?"

3초간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아래에 손에는 내가 좋아할 법한 귀여운 모형이 들려있었다.



'어라? 아라가 왜 이런 걸?'

예상 외의 충격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그때.

"미...미안했어..."

"아...아라야..."

"나도 이걸 주고 싶었어, 내가 잘못된 거 알아... 그제 내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말을 가다듬고 나도 말을 시작했다.

"아라야, 그거 알아? 이 향초, 그니깐 라일락의 꽃말은 우정이래. 이 향초를 받고 다시 시작해 보지 않을까?"

"그리고 있잖아, 나도 미안했어"

이 말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붉게 눈시울을 밝혔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았다.

그러나 남의 시선이 그리 중요하겠는가?

"여러분, 주말 잘 지내고 왔나요?"

늘 듣던 선생님의 목소리와 "네에~" 늘 변하지 않는 아이들의 반응.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다.

"이번 답사 숙제에 B조는 좀 특이한 답을 적어 왔네. 2번째 질문

에 '친구의 소중함/우정'이라고 쓴 이유는 뭐야?"

아이들의 관심이 우리에게로 집중되었다.

나는 아라을 보았고, 아라는 나를 보았다.

"그건... 비밀이에요!"

우리의 대답에 반응은 시원찮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만
족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오늘 교환일기에 새로운 일기가 추가되었다.

어쩌면 짧을 수도 있는 시간.

서로가 서로를 빛내주는 아름다운 꽃다발로 기억되기를.

진실된

아름다움

글 정주현

그림 오지윤, 정주현





진실된 아름다움

글·그림 6-2 오지운, 6-6 정주현

오늘, 마음에서 우러나온 호의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
라는 것을 깨달았다.

짜증 날만큼 눈부신 햇빛이 내리쬐는 날인지라, 괜스레 시
장에 나온 것도 후회되기 시작한다.

전부 다 흐물흐물해진 거리 속에서도 또렷하게 보이는
시장의 정문을 향해 뜨거운 아스팔트 바닥 위
황단보도를 건널 뿐.

어느샌가 도착한 시장에서 처음으로 눈에 들어온 것은,
꽤나 만족스러운 시원한 파란 빛깔의 간판이었다.



모래내시장

"역시 시장에서 살만한 건..."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움일 뿐이므로, 나를 더욱 빛내줄 초록빛 간판이 돋보이는 가게에 입성한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나를 반기는 빼곡한 화장품들 덕인지 숨쉴 구멍을 탁 티우는 기분이다.

남들의 리뷰와 입소문 탄 제품을 번갈아보며 철저히 남들의 반응에 집중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서 가게를 나서고는 또다시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시장을 거닐던 중,

어느 순간 심각할 정도로 더위에 허덕이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던 와중, 한 아주머니께서 내 어깨를 툭툭 치시는 것을 느끼곤 가식적인 눈웃음을 지으며 몸을 돌려 아주머니께 묻는다. "어쩐 일이세요?" 아주머니께서 건네신 것은 다름 아닌 시원한 물 한잔이었다. 어찌보면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이 순간 만큼은 이 작디작은 호의가 그 어떤 것들보다도 귀했다.

그제서야 주위를 둘러본 나의 눈에 비친 것은 화목한 가정, 서로 돕고 돕는 상인들, 시끌벅적하고 호탕한웃음소리 들까지... 아! 그제서야 깨달았다. 아름다움이란 거추장스럽고 걸만 번지르르한 가식 따위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아니, 어찌면 어린 내가 더욱 잘 알고 있었을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

작은 도둑의 친구

글·그림 6-4 이현서



"야, 재가 사람들 물건을 훔치고 돌아다닌대!"

"우리 엄마가 너랑은 놀지 말래. 저리 가. 너 도둑이라며!"

어느 동네에 도둑이라는 별명이 붙은 성민재라는 남자아이
가 있었어요.

민재는 한 번의 실수로 친구들에게서 소외되었지요.

하지만 민재는 그런 시선을 신경쓰지 않으려 노력했지요.

"괜찮아, 이왕 이렇게 된 거, 갈 때까지 가 보지 뭐."



민재는 어느 날, 재미삼아 모래내 시장에 있는 분식집의 옥수수를 훔치는 걸 모르는 여자아이에게 걸렸어요.

"뭐, 뭐야? 아이 씨!"

당황한 민재는 옥수수를 버리고 뛰어가 버렸답니다.

민재와 마주친 여자아이는 떨어진 옥수수를 주워 다시 분식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가격을 민재 대신 치러 주었지요.



민재는 다음 날, 학교에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너 그거 들었어? 옆반의 김수민이란 여자애가 어제 어디선가 옥수수를 갖고 와서 가격을 치뤘대."

"그거, 흠치려다 양심에 찔려서 그냥 갖고 온 거 아니야?"
그 말에 민재는 한번에 알아차렸어요. 소문의 여자아이가 어제 만난 그 아이라는 사실을요.



그것을 깨달은 민재는 바로 옆반으로 찾아갔지요.

그리고 수민이를 찾아 불러냈지요.

"... 그 옥수수 값을 내가 내줬다며? 고마워!"

하지만 수민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손동작을 시작했어요.

수화같이 보였지요.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둘은 금방 헤어졌지요.

민재는 결심했어요. 꼭 수화를 배워서 자신의 고마움을 전하겠다고요.



그 후, 민재는 열심히 수화를 연습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한 덕에 3주 만에 수화를 익혔어요.
곧바로 옆반으로 달려가 수민이를 불렀지요.
'정말 고마워!'
그 한마디에 수민이는 어린아이 같이 웃어 보였어요.
학교가 끝난 뒤에는 수민이가 민재의 팔을 붙잡고 모래내
시장의 냉면집으로 데려가 냉면을 먹었지요. '너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 같아 내가 사주는 거야.'



청각장애로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지만, 친구들은 그런 수민이를 이상하게 생각해 어울리지 못했던 수민이와 실수 한 번으로 도둑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민재는...

'수민아!' '어? 민재야!'

친구가 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의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책 만들기를 마치며...

책을 쓰려고 조사하며, 책에 대한 즐거움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천과 우리 동네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었다.
(6-1 권대성)

이 책을 만들며 구월동 모래내 시장의 소소한 일상과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평범한 공간 속에 담긴 삶의 진솔함을 기록할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정성은 제게 작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6-1 이동현)

우리 마을의 장소과 인성에 관한 책을 내가 친구들과 함께 제작한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6-2 오지윤)

이번 동아리를 하면서 직접 책을 만들고 삽화를 그리는 과정이 정말 뜻깊고 가치 있었던 것 같다. (6-2 현아림)

비록 시간이 길진 않았지만, 소중한 추억들을 많이 쌓을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다. 하지만 내가 정한 주제로 글을 쓸 수 없어서 아쉬웠다. (6-3 심민선)

이런 활동을 하면서 모래내 시장의 여러 유명한 곳을 더 알게 되어서 좋았다.

책을 만들어볼 수 있는 경험도 생겨서 좋았다. (6-3 이하람)

책을 내가 직접 쓰고 또 그림도 그리니 색다른 경험이었다. 다음에는 조금 더 긴 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 (6-4 김정현)

언젠가 제 책을 쓰고 싶던 저는 이번 기회로 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 같아 기쁩니다. 여러분의 꿈 또한 응원하며 모두 꿈을 향해 끝까지 달리시길 바랍니다. (6-4 이현서)

모두 모여서 책 한 권을 만들 수 있는 게 보람차서 열심히 했다. 결과물도 좋아서 만족스러웠다. (6-5 김경빈)

우선 처음으로 책 만들기를 해서 재미있고 새로운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서 조금 더 새롭고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6-5 김서연)

길었을 수도 짧았을 수도 있는 한 달이라는 기간. 이 단편을 준비했던 기간. 점심시간 마다 만나 짬짬이 소설을 쓰던 게 떠오릅니다. 생각 보다 시간은 촉박하게 느껴졌지만 그 촉박한 시간 사이에 새로이 생긴 추억에 젖어 '그닥 힘들지 않았구나' '재미있었구나'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내년 이 동아리에서 새로운 추억을 쌓아갈 친구들의 이야기가 더 재밌어지길, 이 글을 읽는 친구들에게 여운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6-6 이승아)

이야기를 만들면서 느낀 게 많았고, 이런 주제로 글을 써 볼 기회가 생겨서 좋았어요. (6-6 정주현)

이 책을 쓰면서 모래내 시장의 음식점을 더욱 많이 알게 되었고, 이 걸 보시는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다시 한번 책을 쓰게 된다면, 모래내 시장을 주제로 써 보고 싶은 욕심이 있네요. (6-7 방재준)

항상 책을 내는 게 꿈이었는데, 이렇게나마 제 글이 세상에 나오게 되어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글을 써 보고, 제가 직접 쓴 글을 책으로 내보는 게 제 꿈이에요. 이 책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함께 응원해 주세요! (6-7 이송이)

책을 만들면서 책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고, 혜음이 동아리가 좋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지금 3학년인 동생이 크면 이 동아리에 꼭 들라고 해야겠다. (6-8 이현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글로 쓰는 것이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6-8 장은성)

우리 동네의 자랑, 모래내 시장 이야기

초판 인쇄 2025년 11월 24일

초판 발행 2025년 12월 1일

글 / 그림 권대성, 이동현, 오지윤, 현아림, 심민선, 이하랑, 김정현,
이현서, 김경빈, 김서연, 이승아, 정주현, 방재준, 이송이,
이현준, 장은성

지도교사 인천정각초 조선진 선생님

기획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펴낸곳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제작 오리너구리

© 권대성, 이동현, 오지윤, 현아림, 심민선, 이하랑, 이현서, 김정현, 김경빈, 김서연, 이승아,
정주현, 방재준, 이송이, 이현준, 장은성, 2025

이 책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이를 위반 시 민사 및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